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Alexander Galushka 임명
- 러시아 극동개발 관련,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 전망 -

모스크바사무소

□ 러시아, 극동개발부장관으로 Mr. Alexander Galushka 임명

○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**'13. 9. 12(목) 극동개발부장관으로 Mr. Alexander Galushka*를 임명**함으로써, 아시아 주요국과 인접한 러시아 **극동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주요 인사를 완료**

* Alexander Galushka는 **37세로 러시아 차세대 인사**이며, 전 극동개발부장관인 Viktor Ishayev(64세)에 비해 사업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짐.

- Alexander Galushka는 **로비스트 경력**을 가지고 있으며, **크렘린과 관련된 단체(여당 United Russia 포함)간 통합 및 조정 역할을 하는 United Popular Front의 공동대표를 역임**한 바 있음.

※ 러시아 집권 여당인 United Russia는 최근 고위관계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, '11. 5월 United Popular Front를 창설하여 푸틴을 지지하나 United Russia당을 반대하는 층(유권자의 약 12-16% 상당)을 흡수

- United Popular Front 창설 후 **약 2,000여 기관이 United Popular Front에 가입**하였으며, 특히 '13. 4월 제2 야당인 Just Russia당이 United Popuar Front와의 협력 의사를 표명

- 이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 관련 프로젝트 중 **중요 프로젝트를 선별**하여 집중 추진하는 방안과 동 지역 **투자환경을 개선할 계획**

□ 러시아 정부, 부총리겸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로 Yury Trutnev를 임명, 극동개발부 추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

※ 푸틴 대통령은 2000년도 집권 후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강화 목적으로 러시아 전역을 7개 연방지구로 분류하여, 크렘린의 지시를 직접 이행하는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하였음.

- 전 극동개발부장관 Viktor Ishayev가 극동지역 전권대표를 겸임하였으나, 푸틴 대통령은 Yury Trutnev를 부총리겸 극동지역 전권대표로 임명한 것임.

- 이로써 러시아 정부의 부총리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으며, 부총리급이 연방지구

전권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북카프카스 연방지구 전권대표 알렉산드로 흐로포닌 이후 두 번째임.

- 이는 푸틴 대통령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.

○ Yury Trutnev는 과거 내각에서 **8년간 자원개발부 장관을 역임**, 강력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사로 평가

- 향후 러시아 **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** 전망

○ 전임 극동개발부장관 Viktor Ishayev 재임 때와는 달리, **Trutnev 부총리의 정치력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 계획 추진** 예정

- 이를 통해 향후 **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**될 전망

□ **러시아 극동개발에 미국의 적극 참여 가능성 전망**

○ 지난 4월, 미국 의회 subcommittee에서 **최근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관련 우려**

- **미국과 아태지역 미국 우방국**들이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**상업적 기회(commercial opportunities) 추구뿐만 아니라,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제재 필요성** 제기

/끝/